

## 까다로운 핵심 공정 완료…영등포구, ‘여의도 브라이언트 도서관’ 개관 순항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의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될 ‘여의도 브라이언트 도서관(가칭)’의 내년 3월 말 개관을 위해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트 도서관은 옛 MBC 부지 복합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 3,488㎡(약 1,050평)의 대규모로 조성된다. ▲열린 서가 ▲영어특화 공간 ▲다목적 주민 소통 공간 ▲영어 전용 서울형 키즈카페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복합 문화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 9월 브라이언트 도서관 조성 공사 착공 이후,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

과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공조 시스템 ▲전기 설비 ▲통신망 구축 등 내부

기반 시설 공사에 집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진동, 소음, 분진에 따른 민원 발생과 복잡하게 얽힌 공용 배관 구조로 인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브라이언트여의도 내 아파트·오피스·상가 관리사무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핵심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설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구는 도서관의 공간 구성을 완성하는 본격적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최근 착수했다.

구는 앞서 2024년 여의동 주민, 학부모, 교사, 도서관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 운영과 공간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차례 수렴해 설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주민설명회에서는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도서관 조성안을 구민과 공유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추진 전반에 걸쳐 ‘구민과 함께 만드는 공공 문화시설’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가 구민의 호응 속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선유도서관은 운영평가 부분에서 전국 2만 2천여개 도서관 중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라며 “영등포구의 도서관 인프라와 운영 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인된 만큼 여의도 브라이언트 도서관도 구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명품 도서관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시니어가 직접 만든 '서대문구 동 평생학습센터 투어 영상' 공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현)는 ‘반려학습도시 - 미래기술편’ 교육과정의 성과 작품인 ‘서대문구 11개 동 평생학습센터 투어 영상’을 최근 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구가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5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한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 반려학습도시 서대문구’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하나의 성과다.

동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법에 근

거한 것으로, 구는 주민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올해 11개 센터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반려학습도시 - 미래기술편’은 디지털 기기와 영상기술을 활용해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평생학습을 주민 시선에서 기록·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교육과정이다.

학습자들은 모두 50세 이상으로, 영상 기획과 스토리 구성, 카메라 촬영 및 음향 실습, 편집 프로그램 활용 등의 교육을 받은 뒤 직접 동 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와 주민을 인터뷰하고 현장을 촬영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동 평생학습센터별 홍보영상 11편이 완성됐으며 이는 각 센터로 전달돼 자체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공개 영상은 ‘어디서 배울까?’ ‘여기서 배운다!’란 메시지 아래 9개 동 11개 평생학습센터의 공간, 대표 프로그램, 주민 참여 모습을 현장감 있게 담았으며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 강동구, 특별조정교부금 29억 원 추가 확보 … 주민 체감 사업 본격화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2025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보육환경 개선, 보행 안전 강화, 생활 인프라 정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 투입돼 어린이와 보행자,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먼저, 구립고덕2어린이집 및 우리동

네키움센터 건립에 1억 9,800만 원을 투입해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고덕동 일대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 원)와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노후 전기시설 정비(2억 5천만 원)를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천호·성내·둔촌 지역 방범 CCTV 확충(2억 8천만 원)으로 범죄 시각지대를 해소해 생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사로 노후 가로등 교체(6억

6,400만 원)를 통해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천호역 주변 올림피코 보행환경 개선(6억 원)과 굽은다리역 주변 양재대로 보행환경 개선(4억 5,200만 원)을 추진해 이용 주민이 많은 노후 보도를 정비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

천호도로 결빙취약구간 안전환경 조성 사업(1억 5천만 원)을 통해 경사도가 높은 천중로 구간에 열선을 설치해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설 예정이다.

## 서울 도시계획정보를 더 스마트하게, 시민편의·행정효율 강화

시민용 포털 서울플랜+에 조감도, 관련 고시 추가 탑재…이용편의·만족도 향상 기대

업무용 시스템에 공간분석 기능 본격 도입…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기반 마련



서울시는 도시계획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여 2026년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용 서울도시공간포털과 시·구 도시계획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동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에게는 도시계획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 수립부터 검토,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도시공간포털은 시민의 관심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7월 말 개통한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 ‘서울플랜+’에 조감도와 관련 고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플랜+ 개통 이후 포털 방문자 수는 약 20% 증가했으며, 하반기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8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콘텐츠 확대를 시민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시스템에는 단순 정보관리에서 나아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간분석기능이 본격 도입된다.

서울시 전역의 공공시설 기초데이

터를 생활기능과 일상 활동 기준으로 구축해 이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의 시설 분포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여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을 조기에 진단하고, 보다 균형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행정 기본자료를 활용한 항목별 분석도 가능해져, 사업 타당성 검토는 물론 계획 대안 비교까지 지원하는 등 도시계획 수립 전반에서 실무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시계획 정책 수립에 앞서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분석 기능도 새롭게 추가된다.

분석대상지를 선택하면 토지이용 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석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저장된다. 이에 따라 반복적이고 수작업에 의존하던 사전검토 절차가 표준화되면서 업무속도와 품질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 소유 공공토지 자료를 DB로 연계해 전직원이 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색조건을 통해서 시유지의 상세정보와 구역정보 확인이 가능해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은 물론 토지기반 정책의 정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성 기자

## 서울시-국민권익위 협업으로 문화누리카드 제도 개선

시,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업 통해 시민 불편사항 적극 개선해 나갈 것”

앞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유무부zust위원회(위원장 조덕현, 이하 ‘위원회’)는 ‘서울지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감시평가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누리카드로 불리며, 취약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이용자에게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서울지역 이용자 지원 예산은 612억 원(국비 398억, 시비 214억)이고, 지원대상은 약 436천 명에 달한다.(※ 전국 약 3,696억원, 대상자 264만 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감시·평

가 결과 여러 불편사항과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었다. 특히 이용자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카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에서도 한계가 드러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에 사업 감시 결과 문제점 및 조치방안을 전달하면 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

특히 70대 이상 이용자의 82%인 약 6만 6천 명이 전액 미사용자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미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을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에서 ‘2개 년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로 변경하도록 제안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둘째, 실물 카드에 ‘문화누리’ 표시가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유추할 수 있어 사용을 꺼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실물 카드 없이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오픈페이 등)를 적극 홍보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셋째, 해외여행 등 국외에서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어 관련 경비가 부정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등 국외 사용이 불가함을 사업지침에 명시토록 하였다.

넷째,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외부 감시를 어렵게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되어 연도별로 부정사용 신고건수, 적발유형, 조치 결과 등을 ‘부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장성 기자

## '한옥살이' 로망이 현실로…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종로·성북구에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총 7호 공급… 1.15.(목)~16.(금) 신청

올해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울시는 12.30.(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1.15.(목)~16.(금) 양일간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되며, 17.(수)~1.14.(수)(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12.(월)에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

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한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이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

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원서동 4호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끝없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어 매력적인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앞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장성 기자

